

이춘재, 화성연쇄살인 등 “내가 진범 맞다”

짧은 머리에 수형복 입고 34년만에 모습 드러내
“사건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다”
“경찰이 접견했을때 이제 올 것이 왔다고 생각”
“거부하려 했으나 전문 프로파일러 때문에 진술”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인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진범인 이춘재(56)가 2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1980년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 14건에 대해 “내가 진범이 맞다”고 증언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수원지법 제12 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수원법원중합청사 501호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가 경찰 재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다시 한 번 법정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6분 가량 늦게 시작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 씨의 변호인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이 맞다”고 물어본 질문에 “예, 맞습니다”고 진술해 그동안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복역 중인 부산교도소에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때문에 접견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것이 스치듯 지나갔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려고 했으나 전문 프로파일러 때문에 진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윤 씨의 변호인이 “가석방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행 인정진술로 가석방 가능성 없어질 것 생각했나”라고 묻자 “그런 생각은 했지만 사건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언젠가 교도관들이 제조자들의 DNA를 채취해갔는데 이 때문에 경찰에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당시 현장에 대해 은폐라든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DNA 채취하고 금방 경찰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하지만 경찰은 바로 찾아오지 않았고, 그 때문에 있고 있었다”고 경찰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이춘재 대신 누명을 쓰고 '8차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의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의 재심으로 이춘재는 이날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 1시 37분께 그가 법정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은 그에게로 쏠렸다.

이춘재는 길고 가름한 눈매에 길쭉한 얼굴형의 하얀피부보 온라인 상에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34년 만에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은 이춘재가 출석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서 알려진 사진과 유사해 알아보기 어렵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서실 때의 모습은 흰머리카락이 들쭉 들쭉 보이는 짧은머리에 하얀 마스크와 빛바랜 파란 수형복을 입고서 법정에 입장했다.

이어 선서를 하고 재판부의 질문에 차분한 분위기로 대답하며, 변호인의 질문에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해나갔다.

지난 1986년 첫번째 살인사건을 저지른 지 34년 만에 그의 입으로 직접 그의 범행과 관련 진술을 털어놓는 자리로 그의 한마디와 행동 하나 하나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였다.

법정은 변호인과 검사 측 요청인원, 이춘재를 진범으로 밝혀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직원, 취재진 등으로 40여 개의 자리가 꽉 찼다.

중계법정과 연결된 듯한 화면에는 재판부, 증인, 변호인, 검찰의 자리가 보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부지방경찰청 직원, 취재진 등으로 40여 개의 자리가 꽉 찼다.

김민정기자

여수경찰 보이스피싱 30대 여성 현금수거책 검거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속여 2000만 원을 챙긴 후 달아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대한대출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A(39·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7분께 좋은 이율로 대한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여수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경남 함안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17일 두 차례에 걸쳐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현금 수거책 B(58) 씨를 붙잡았으며 23일 다섯 차례에 걸쳐 3900여만 원을 가로챈 수거책 C(43) 씨를 붙잡았다. tte

개그우먼 박지선·모친, 자택서 숨진채 발견...경위 파악중

개그우먼 박지선(37)씨가 모친과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4분께 박씨의 부친이 “아내와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과 소방은 오후 2시15분께 서울 마포구 박씨 자택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후 박씨와 박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이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평소 지병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이에 박씨 어머니는 상경해 함께 생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 여부와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한 것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박씨는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최근 EBS ‘고양이를 부탁해’, 채널A ‘송은이 김숙의 영화보장’ 등에 출연한 바 있다.

경찰서에서 폭언 일삼고 집기 파손한 취객 구속 송치

광주 서부경찰서는 경찰서에서 잇단 행패를 부린 혐의(관공서 주취소란 등)로 A(6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에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폭언을 하고 화장실 변기 등을 깨부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요급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가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목격자에 도착해서도 요급 1만6000원을 내지 않고 버티자, 택시 기사는 ‘돈은 받은 것으로 하겠다. 귀가를 도와달라’며 A씨를 경찰서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향해 20여분 간 욕설·폭언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에도 A씨는 유치장 화장실 변기를 깨뜨리고 용변을 보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과속·중앙선 침범 3명 사상 10대 실형

면허 없이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3명의 사상자를 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4일 오후 3시30분 광주 서구 농성지하차도 출구 쪽 편도 2차선 도로(화정사거리 방면)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와 자신이 몰던 차의 동승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동승자 1명도 크게 다쳤다.

A군은 제한 속도 60km 도로서 시속 103km로 과속했고, 지하차도에 진입하려고 무리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군의 중대한 과실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한 상해를 입어 결과 불법이 중하다. A군은 자동차 종합보험과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다”고 지적했다.

‘광란의 질주’ 만취 무면허 40대...실탄도 안 통해

암행순찰차 충격 후 국도로 진입...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 등을 질주하던 4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을 쓰며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했다.

무면허였던 이 남성은 도심과 고속도로 약 100km를 질주하며 도주로를 막은 암행순찰차까지 치고 달아났다.

2일 전북 남원경찰서와 전남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께 “순천~완

주 고속도로 상행선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3차례 접수됐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순천 황전휴게소 인근에서 용의차량인 1t 트럭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트럭 운전자 A(40)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에 공조 요청을 받은 암행순찰차가 트럭의 진로를 막고 도주로를

차단했으나 오히려 후진해 암행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경찰은 A씨가 탑승한 차량 바퀴를 겨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기도 했지만, A씨는 광란의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이후 17번 국도로 진입한 A씨는 중앙선을 지그재그로 넘나들며 아찔한 곡예 운전을 이어가다 추가 도로로 차단에 나선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의 위험한 질주는 순찰차 4대가 트럭의 모든 이동경로를 가로 막

으면서 이날 오후 10시에 끝이 났다. 그는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약 100여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속도로에 오르기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천 시내 등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남원에 있는 사무실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